

최혁 목사, “서로 포용해 진정한 에클레시아 이루자”

주안예교회 창립 11주년 최혁 목사 마지막 주일 설교

주안예교회(최혁 목사)가 창립 11주년 감사예배를 28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최혁 목사는 이날 주안예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주일설교를 이끌었다. 지난 6월 교회는, 담임인 최혁 목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안예교회(ICCC,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서부노회)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담임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제2대 담임목사를 청빙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힘써 지키라’(에베소서 4장 1-6절)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는 하나님께 하는 성령님을 의지해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 목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며 “거듭난 자들이라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누지만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한다”라고 했다.

이어 “겸손은 철저히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 교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면서 “하나 됨을 이룬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야생마를 처음 데려왔을 때 힘이 굉장하 세지만 조련사의 의도를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질 때 온유라는 말을 쓴다. 내가 분이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통제할 능력이 있는 상태를 온유라 할 수 있다. 내 인생의 고삐를 잡으신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사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는 상태가 온유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게 된다. 1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1년 동안 해왔던 목회를 돌아보았는데 부족한 것



주안예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예배에서 마지막 주일설교를 이끈 최혁 목사는 공동체 안에서 조금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것들을 수용함으로 누군가의 바나나가 되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만 생각이 났다. 나를 객관적으로 비춰봐도 쓸만한 그릇이 아니고 고쳐 쓰기에도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면서 “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것은 사람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보니 이분 저분의 마음도 예수인테 생각과 방법이 다르다고 가슴 아프

게 했던 일들이 떠오른다.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조금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것들을 수용함으로 누군가의 바나나가 되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 공동체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대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바란다.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라고 했다.

2013년 최혁 목사가 개척한 주안예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1,7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왔다. 또한 36개국의 80여 명의 파송/협력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및 선교 단체들을 섬기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4개 동의 교육관 채플 건축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 피살

이란혁명수비대 하니에의 사망 공식 발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31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하니에와 그의 경호원 1명이 테헤란의 주거지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IRGC는 성명을 통해 “영웅적인 팔레스타인과 이슬람국가, 저항 전선의 전사들과 고귀한 국가 이란에 애도를 표한다”며 “오늘 아침 테헤

란에서 하마스 이슬람저항 정치국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에 박사의 거주지가 공격을 받아 그와 그의 경호원 중 1명이 순교했다”고 밝혔다. IRGC는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과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며, 추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스는 이후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하니에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니에는 당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 공식 입

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란 국영방송의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며 비난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알카사 홍수 기습 공격 이후 10개월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하마스를 궤멸시키기 전에는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스마일 하니에의 피살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향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국제 사회는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각국의 반응, 그리고 이로 인한 중동 정세의 변화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 발표와 하마스의 후속 대응, 그리고 이란 정부의 조치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는 이 사건이 중동 지역의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윤식 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호(7월 26일자, 924호) 2면 기사 ‘남가주교계연합 8.15 광복절 기념 음악회’ 기사에서 이 행사가 남가주교협(회장 최영봉 목사)이 주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 행사를 주최하는 솔로몬 대학교 (총장 백지영 박사)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관련기사 2면.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 처방전

목회자는 며칠 간 성경 본문과 씨름하며 설교를 준비하지만, 지루하고 율법적인 설교에 교인들이 지쳐간다. →관련기사 3면.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사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과가상가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리스

뱅크리스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한)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 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외임의외교원 변호사
 (전) 재미발행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경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제5회 글로벌 복음 통일 컨퍼런스 방콕서 개최

10월 29일~11월 1일(화~금) 방콕한인연합교회서 개최 임현수 목사, 케네스 배 선교사 윤학렬 감독, 탈북자 등 참여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5차 글로벌 복음 통일 미션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29일(화)부터 11월 1일(금)까지 방콕한인연합교회(담임 신상태 목사)에서 개최된다.

“디아스포라 복음 통일 연합 방안”, “다음 세대와 복음 통일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는 미국과 한국,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해 복음 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 강사로는 북한에 역류 됐다 풀려난 임현수 목사와 케네스 배 선교사,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 DTS 학교장을 역임한 마크 조 선교사, ‘철가방 우수씨’를 제작한 하나님의 문화 전도사 윤학렬 감독, 명문 크리스천 사립학교 벨국제아카데미 교장 이희남 목사, 7명

의 탈북 증언자 등이 참여한다. 특히 벨국제아카데미를 통해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에 매진해 온 이희남 교장은 차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복음 통일 전략과 더불어 100세 시대 실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복음 통일 전략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또 영화 ‘부흥’을 제작 중인 윤학렬 감독은 영상 문화가 복음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북한 선교 경험과 북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와 실버세대를 향한 복음 통일의 가치와 실질적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박상원 목사는 “그동안 북미주와 한국 교회의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던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올해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개최하게 됐다”며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목회자 및 성도들과 복음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글로벌 복음 통일 컨퍼런스는 북한 선교 전문가들

과 함께 복음의 통일의 전략을 나누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마음으로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며 “이번 컨퍼런스 역시 우리의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남겨진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참석 대상은 미국과 한국, 유럽과 아시아 등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에 관심 있는 전세계 한인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 및 다음 세대 리더십이며 자세한 내용과 컨퍼런스 등록은 기드온 동족선교회 웹사이트(gideonbrothers.org)에서 하면 된다.

제5차 글로벌 복음 통일 컨퍼런스 참여 및 기타 문의는 전화 425)775-7477로 하면 된다.

2018년에 발족된 ‘복음 통일 전문네트워크’는 2019년 LA 파세데나에서, 2021년 하와이 코나에서, 2022년 휴스턴에서, 지난해에는 달라스에서 4차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드온 동족선교회 기사 제공 기드온 동족선교회 웹사이트: gideonbrothers.org/ 참여 및 문의: 425)775-7477

제5차 글로벌 복음 통일 미션 컨퍼런스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콕한인연합교회(담임 신상태 목사)에서 개최된다. ©기드온동족선교회

광복 제79주년 8·15 기념 경축 음악회

일제 강점기 36년의 치하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8.15 광복 제79주년을 맞아 솔로몬

대학교(총장 백지영 박사)가 주최하고, 솔로몬몬인마누엘선교교회, 힐링선교센터가 주관

솔로몬 대학교 주최로 광복 79주년 기념 음악회가 8월 10일(토) 오후 3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개최된다.

하는 8.15 기념 경축 음악회가 8월 10일(토) 오후 3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테너 오위영 목사, 오정록, 소프라노 김희우, 이영주, 김숙영, 바리톤 장상근, 경신 코랄(지휘 장진영), 에버그린 콰이어(지휘 노혜숙), 피아니스트 윤경미, 바이올리니스트 황예주 등이 출연해 오페라 아리아와 성가곡을 통해 감동의 무대를 펼치게 된다.

음악회 입장료는 1인당 30달러이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8.15 음악회 일정: 8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남가주새누리 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문의: 323-708-9191 213-381-7755

효사랑시니어대학 가을학기가 8월 13일(화)부터 매주 화, 목 17주간 진행된다. ©효사랑선교회

효사랑시니어대학 가을학기 개강

부에나파에 있는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의 시니어대학(학장 정찬근 목사)이 2024년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8월 13일 화 오전 9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며 17주간 매주 화, 목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을 제공한다.

2024년도 가을학기에는 1) 성경파노라마, 2) 음악 교실, 3)난타 교실, 4) 힐링댄스, 5) 하모니카 교실, 6) 글짓기 교실, 7) 합창 8) 미술(캘리그래피 교실), 9) 에어로폰 교실과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성경 파노라마는 성경을 연대기순으로 배우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클래스이다. 3개월 코스로 진행되는 미술 강좌는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니어대학이 제공하는 수업은

유튜브에서 ‘효사랑선교회’ 혹은 ‘효사랑 시니어대학’을 검색하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매년 학기를 마칠 때마다, 멕시코 안센나에 있는 양로원과 갱생원에 1박 2일간 단기 선교를 간다. 지난 봄학기를 마치고 6월 26-27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멕시코 안센나다 양로원과 여성 갱생원, 청소년 갱생원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다.

등록금은 매월 100달러이고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접수는 선착순이다.

주디 한 기자 장소 : 7342 Orangethorpe Ave, #113, Buena Park, CA90621 문의: 714-833-2710, 562-833-5520 효사랑선교회 사무실: 714-670-8004

기독교일보 주최

세대통합목회 목회자세미나

주제: 삼대동일신앙으로 명문가문을 이루자 (신명기 6장 2절)



강사: 김경윤 총장 (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충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표제일노회 노회장

김경윤 총장 집회

- 8월 21일(수)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8월 25일(주일) 오전 11:45 주은혜교회 (담임 최호연 목사) 808 Foothill Blvd,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세미나 제목

- 1강 주님이 원하시는 삼대동일신앙 - 김경윤 총장
- 2강 삼대동일 신앙을 세우는 방법 - 김경윤 총장
- 3강 삼대동일 신앙의 실재 - 서인석 목사

- 날 짜 : 2024년 8월 20일(화) 오전 10:00~2:00
- 장 소 :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등 록 : QR 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 등록비 : 무료
- 문 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후원단체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목사회, 남가주 여성목사회, OC 여성목사회,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등록신청



강사: 서인석 목사 철학박사(Ph. D.) (전)광주제일노회 노회장 역임 (현)창조교회 담임목사 (현)바이블동서남북(대표 윤대영목사) 한국 부원장 (현)광신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전임) (현)CTS 방송 자문위원(목포)

서인석 목사 집회

- LA 소망선교교회(김영호 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8월 23일(금) 오후 7:00
- 8월 24일(토) 오전 11:00, 오후 7:00
- 8월 25일(주일) 오전 11:00

“당신의 설교를 새롭게 디자인하라!”

원 포인트 드라마틱 강해설교 귀납적 전개와 내러티브를 통해 청중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개방적 방식

설교로 인해 목회자의 자신감을 잃고 있는 목회자들,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목회자들, 교인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주지 못하는 설교를 탈피해 새로운 설교를 추구하는 이들을 오랫동안 도와온 설교학 교수가 있다. 바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신성욱 교수이다.

그는 설교학 수업과 설교 세미나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다고 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내용(무엇을 전할 것인가), 형태(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전달(어떻게 전할 것인가)이 그 세 요소이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설교의 경험이 별로 없는 학생들은 설교의 ‘내용’을 짚는 반면, 설교 경험이 많은 목회자들은 ‘전달’을 짚는다고 한다.

신 교수는 설교자가 청중이 무슨 관심거리를 갖고 있는지에 관심 없이 본문에만 관심을 갖는 우를 지적하며 ‘오늘날 설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한 ‘원 포인트 드라마틱 강해설교’를 소개했다.

7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웰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목사)와 기독일보는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는 신성욱 교수를 초청해 원포인트 강해설교 세미나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설교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나눈 후, 1970년대 세계 설교학계에서 대지 설교가 아닌 원 포인트 설교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지만, 한국 상황에 맞는 설교 프레임이 부재하던 차에 ‘원포인트 드라마틱 강해설교’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원포인트 강해설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본문에서 핵심 메시지 하나를 추출하고,
2.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다루며,
3. 연속성과 역동성과 반전의 프레임으로 움직이게 한다.
4.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들리고 보이도록 설교하며
- 5.예화를 설교 전 반부와 후반부에 분리 소개함으로써 드라마틱한 흐름을 취하며
6. 신성한 제목을 선택해 하나의 선명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신성욱 설교학 교수가 7월 29일(월)~30일(화) 한길교회(고광선 목사)에서 열린 ‘원포인트 드라마틱 강해설교 세미나’를 이끌었다. ©기독일보

핵심 메시지를 결론에 남긴다.

강해 설교란?

그는 강해설교의 권위자인 해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 고든-콘웰 신학교 설교학 석좌교수)의 정의를 바탕으로 강해 설교를 새롭게 정의했다.

“해돈 로빈슨은 ‘강해설교는 어떤 구절을 문맥에 비추어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얻어진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저는 그의 정의에 내용을 추가했다. 강해설교는 적절하게 잘 선정된 본문 속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베스트의 프레임과 수사기법과 예화를 통해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설교 방식이다.”

청중 분석 없는 본문 분석은 무용지물

“강해설교가 되려면 적용이 있어야 한다. 적용이 없으면 주석이다. 설교가 아닌 성경공부이다. 청중 분석 없는 본문 분석은 무용지물이다. 성경 만큼 중요한 것이 청중이다. 청중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강해설교는 본문의 핵심을 잘 전달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프레임, 레토릭, 예화가 필요하다.”

그는 오늘날 설교의 문제점으로, “1. 율법적 내용이 많다, 2. 행함과 순종이 불가능한 내용, 3. 본문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음, 4. 한 관점으로 치우친 설교, 5.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치중하는 성경 공부식 전달, 6. 설교가 어떻게 전개될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제목과

내용, 7. 기억하기 힘든 복잡한 설교의 대지, 8. 단조로운 설교 전달 방식(음성의 고저, 장단, 강약, 음조, 톤) 9.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 적용 10. 설교 원고 숙지 시간의 부족”을 꼽으며,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고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완성된 원고를 적어도 10번 이상 읽으라.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이동원 목사의 설교 변천 과정에 대해, ▶‘제목 설교’에서 ‘본문 중심 설교’를 거쳐 ‘강해설교’로, ▶‘책별 연속 강해설교’에서 ‘주제별 시리즈 강해’로, ▶‘연역적 서론’에서 ‘귀납적 서론’으로, 예화를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에서 예화를 서론과 결론에서 나눠서 소개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다고 분석했다.

‘책별 연속 강해’ 보다 ‘주제별 시리즈 강해’ 효과적

그는 ‘책별 연속 강해 설교’에 대해서, “교회에 부임을 했다면 책 하나를 연속해서 하는 강해 설교는 절대 하지 말라. 교인들이 질려버린다. 대신 주제별 시리즈 강해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원포인트 드라마틱 강해설교를 “귀납적 전개와 내러티브를 통해 청중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개방적 방식”이라며, 새로운 설교 방식으로, 상식을 부정하고, 사색하며, 인문고전을 읽고, 성경의 본문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기를 조언했다.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보고, 고정관념을 깨고 당연함을 부정하라. 모두 당연하게 지나치는 것일지라도 의문을 품으라.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포도주 통

이 아닌, 결레통에 물을 집어넣어 포도주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결레통은 유대인의 결레(潔禮)를 따라 잔치에 온 손님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 놓았던 통인데 예식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 교수는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며, 이것이 목회자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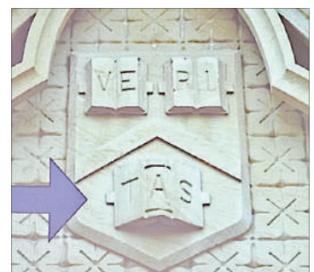
첫째 날 오후 강의에서 원포인트 강해설교의 구체적 방안들로 ▶세심한 주의력과 관찰력, ▶원어성경 참조, ▶핵심주제가 포함될 수 있는 본문 선정, ▶문맥 파악, ▶본문 속 현장감 재현을 제시했다.

그는 “성경을 장과 절의 구분 없이 한 덩어리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사울 대 다윗의 싸움으로 보아야 통전적 시각이 가능하다. 이 장면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현미경식으로 관찰하는 것을 멈추고 망원경식으로,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듯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찰력의 한 예로, 살전 5:2와 4절을 제시하며, ‘예수님 오실 날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4절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를 간과한다고 말했다. 또,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후 7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성경 내용이 틀린 게 많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외에, 윌

리엄 S. 클라크의 원문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하버드 대학 로고 등을 통해 원문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버드 로고에 책 세 권에 진리(Veritas)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는데 이것이 원래 로고가 아니다. 하버드를 만든 이사님들이 신명기 29:29,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를 모토로 삼고 하버드를 세웠다. 원래 로고에는 위에 두 권은 펼쳐져 있지만, 아래 한 권은 닫혀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교만해졌다.”



하버드대학 오리지널 로고. 아래 책은 닫혀 있다. ©신성욱 교수

문맥 파악의 예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마 6:22-23) 제시하며, ‘성하면’이 킹제임스 버전에, ‘single’로 되어 있다며, “네 눈이 하나의 초점이면 온몸이 편할 것이요, 네 눈이 이중초점이면 온몸이 불편할 것이니”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 구절을 야고보서 1: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과 연결 지었다.

요 1:16-17의 “은혜 위에 은혜”가 바른 번역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견들에 대해 나누고, 귀납적 설교 원고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숏하게 많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보여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의 확신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다. 두 번째는 체험, 체험은 큰 힘을 주지만 주관적이다. 그러나 빼도 박도 못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대영박물관에 다 있다.” 주디 한 기자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메디칼 그룹의 모델임을 알립니다.

리버티 대학 팀 창(Tim Chang) 교수

우리가 몰랐던 북한 교회 이야기

“히 13: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기독교 사립 대학인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에서 문화 인류학글로벌 노동자를 위한 직업 준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참여의 역사와 이론 등을 가르치는 팀 창 교수에겐 북한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1974년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온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진로를 밝혔다. 사우스 웨스턴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풀러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10년 이상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풀러신학교, 골든게이트 침례신학교, LA 로고스 신학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06년, 그의 삶은 변곡점을 만나게 된다. 북한 선교를 위해 아내와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중국 연길로 이주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접하며 그들의 신앙과 삶이, 외부에서 접하고 듣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화요일(7월 23일) 기독교일보 사무실에서 만난 팀 창 교수는 “저는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 안한다. 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히브리서 13장 3절을 언급했다. 즉, 북한의 크리스천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그들을 함께 돕는 것이 미주 한인 크리스천들, 미주 한인 교회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2006년에 북한 선교를 갔다. 미국에서 저희 가족과 연변 연길에서 살았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연길에서 살면서 북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많이 알고 싶었다. 2014년도에 UCLA학회를 위해 중국에서 「Christianity history of North Korea」에 대해 썼고 2019년에 UCLA에서 발표했다. 얼마 전에는



리버티 대학 팀 창(Tim Chang) 교수. 리버티 대학교에서 문화 인류학, 글로벌 근로자를 위한 경력 준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참여의 역사와 이론과 같은 과목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6년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중국 동북부 연길로 이주해 중국 교회와 함께 2017년까지 11년 동안 북한선교를 했다. ©기독교일보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그것이 전부 아니다”
“95~98년 대기근이 북한의 대부흥으로 이어졌다”
“북한 안에서 전도, 조용하고 서서히 이루어 지고 있어”**

옥스포드 종교 연구 학회(Oxford Symposium on Religious Studies)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계속 연구하면서 그 정보를 10년 동안 모아서 쓴 것이다.”

“북한의 역사는 1945년부터 봐야 한다. 그 전에는 평양에서 1907 부흥이 있었고 많은 선교사가 북한에서 일했다. 북한을 이야기하려면 공식적으로는 1948년, 비공식적으로는 1945년부터 봐야 한다. 1945년에 8.15광복 이전에 이미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 ‘38선’이 그어졌다. 8.15 전에 이미 러시아가 북한에 들어와 있었다.”

“냉전으로 미국과 소비에트 연합이 한국 땅에서 싸우는 형국이 었다. 상황이 1905년과 10년전인 1895와 비슷했다. 1895년에 우리나라 종주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고, 1905에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 땅에서 싸웠다. 냉전도 비슷한 것이었다.”

팀 창 교수는 북한의 역사를

세 개로 구분한다. 첫번째 시기는 1945-1970년 기독교 말살기, 두 번째는 1971-1994년 정치적 목적의 대외 기독교 재출현 시기, 세 번째 1995년-현재는 기독교 부흥기로 본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근(1995년-1998년)이 북한 내 대부흥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갔는데, 그 당시 북한에서, “교회를 찾아가라. 거기 가면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가 뭔지도 모른 채로, 십자가가 보이는 건물을 찾아 갔다.

또 한 가지 팀 창 교수가 강조한 것은 한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탈북 후 한국으로 가는 비율은 매우 적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탈북 후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오면 많

은 사람이 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탈북 후 한국으로 가는 사람은 100명 중 한 사람 정도이다. 과거에는 중국과 북한 사이가 좋으니가 펜스도 없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1966년-1976년)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탄압을 받으니 북한으로 가 정착한 중국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북한에 정착해 자녀를 낳고 자녀가 북한 사람과 결혼해 사는 것이다. 탈북 후 대부분 중국으로 간다. 그런데 이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들 만나면, 선교사가 되어 북한으로 돌아간다.”

팀 창 교수는 북한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내 크리스천 인구 수가 약 30~50만 정도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제가 신앙에 살 때 선교사님이 북한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

나?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천천히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북한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데이빗 플랫 목사(David Platt, ‘래디컬Radical’의 저자, 미국 앨라바마 주 버밍엄에 소재한 브룩힐즈교회 담임)는 북한에 크리스천 50만 명이 있다고 말한다. 2017년에 제가 북한 교회를 연구할 때, 30만~50만 정도였다.”

“사실 북한 정권에서는 되도록이면 크리스천과 갈등을 피하려 한다. 우리는 북한이 크리스천을 다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워싱턴 D.C에 있는 인권 단체에서는 북한에서 성경 소지 죄로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감옥에 가더라도 내보내 주기도 한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100개의 사례 중에 5~10% 정도이고 대부분은 북한 정권도 조용히 끝내려 한다.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편이다.”

팀 창 교수는 북한과 남한을 다른 나라로 보지 않는다. 그는 남북한 전쟁이 우리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갇히고 학대 받는 북한 크리스천들을 미주 한인들과 한인 교회가 함께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 다른 나라라고 생각 안한다. 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1953년에 전쟁이 끝났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나? 한국 전쟁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외부 세력 때문에 일어났고 1953년 3월에 스탈린이 죽고,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다.”

“베드로도 바울도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한다. 북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지내야 하는지 가장 잘 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갇힌 자 된 북한 크리스천들을 생각하고, 학대 받는 그들을 생각해야 한다.”

토마스 멩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태양광, 솔라!! *** 전기세 50~90% 절감 ***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Lic#854389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 최고의 워런티**
25 YEARS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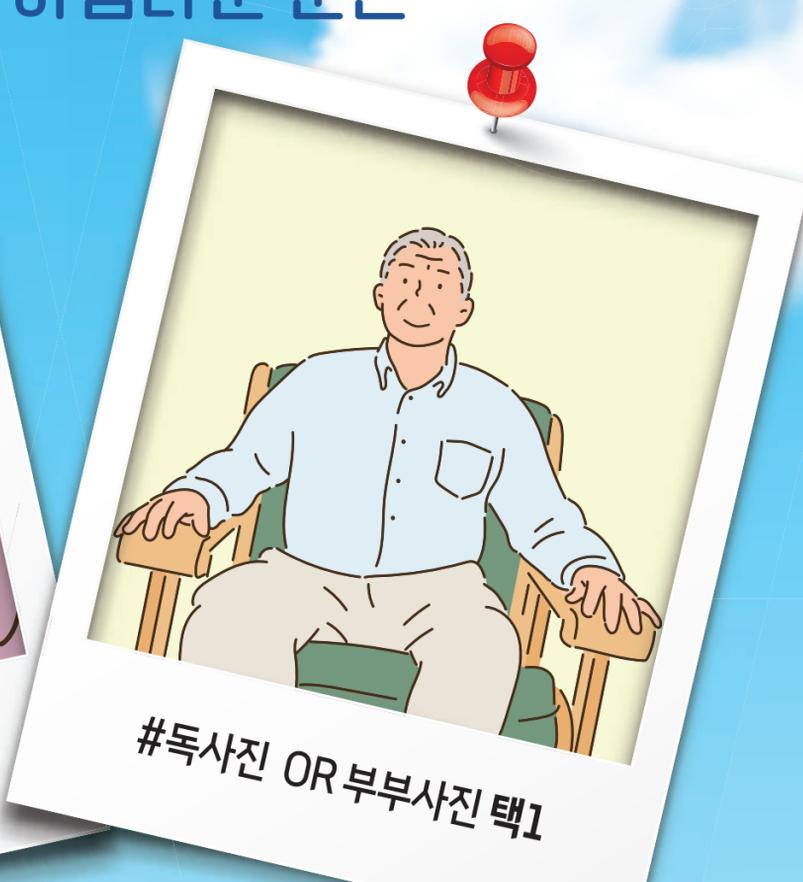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무료 사진관 OPEN!

청춘 사진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센터메디컬그룹이 오픈하는 무료 청춘사진관 안내

일시

〈8월〉	8월	8월
	마감	23일
〈9월〉	9월	9월
	13일	27일

주소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지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예약전화

(888) - 847 - 3098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美 개신교인 60% “6개월간 1명 이상 교회로 초청”

미국 개신교 신자 10명 중 6명이 지난 6개월 동안 최소한 한 명 이상을 교회로 초청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지난해 9월 미국 개신교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60%)가 “2023년 상반기에 친구 또는 지인을 자신의 출석 교회로 초청했다”고 답했다.

“몇 명을 교회로 초청했는가”라는 질문에 “한 명”이라고 답한 개신교인은 19%, “두 명”은 21%였다. 또 “세 명 이상”은 20%, “정확

히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여러 명”은 7%였다. 반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33%)은 “지난 6개월 동안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불편해서”(13%), “전도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7%),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바빠서”(4%) 등이었다.

교회 출석 빈도와 전도 횟수의 상관관계도 뚜렷했다. 매주 교회에 간다고 밝힌 개신교인의 경우 응답자의 27%가 “세 명 이상을 교회로 초청한 적이 있다”고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경우 이 수치는 11%로 떨어졌



©Ismael Paramo/ Unsplash.com

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이 노령 교인보다 전도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50~64세의 약 3분의 1(32%)과 65세 이상의 거의 절반(46%)이 “지난 6개월 동안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5~49세 중 29%는 “최근에 최소 3명을 초대했다”고 말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전무이사는 “교회 초대는 희망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자 기독교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며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의도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혜진 기자

美 일리노이, ‘종교자유지수’ 2년 연속 1위

미국 일리노이주가 2년 연속으로 종교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주에 선정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종교, 문화 및 민주주의 센터는 지난주 ‘주별 종교적 자유’에 관한 세번째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교 자유 보호 장치의 유무에 따라 50개 주의 순위를 매겼다. 일리노이주는 2년 연속 종교 자유 보호가 가장 우수한 주로 선정되었으며,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최하위에 올랐다. 그러나 일리노이주의 전체 점수는 81%로, 지난해 85%에서 4% 하락한 반면,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4%에서 올해 2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보고서는 각 주의 16개의 종교 자유 보호 조치를 평가했다. 일리노이주는 가장 많은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으며, 동성 결혼식 주례를 원치 않는 공직자, 동성 결혼식에 서비스 제공을 원치 않는 영리 기업, 의료 응급 상황에서 낙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종교 시설의 강제 폐쇄를 방지하는 장치만이 부족했다.

반면, 일리노이주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부채자 투표 보장, 의료인을 위한 양심 보호, 불임 수술이나 피임약 처방을 거부하는 의료인을 위한 보호, 낙태와 불임 시술 보장을 원치 않는 고용주를 위한 건강 보험 의무 면제, 동성 결혼식 주례를 원치 않는 성직자 및 종교 단체

를 위한 보호 등의 종교 자유 보호 장치를 갖췄다. 이 주는 미성년자가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종교 자유회복법(RFRA)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이유로 아동 백신 접종 요구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며, 종교적 이유로 인한 결석을 허용한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된 종교 자유 보호 조치는 건강 보험 의무에 대한 면제이다.

예방 접종 요건에 대한 면제가 없는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아이오와, 미시간,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이다. 이들 주는 이 영역에서 완전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오직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인, 미시시피, 뉴욕, 웨스트버지니아만 부분적인 면제를 제공한다. 앨라배마, 캔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부채자 투표가 허용된다.

또한 25개 주는 종교자유회복법(RFRA)을 제정되어 있으며,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캔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에 속해 있



©Caleb Fisher/ Unsplash.com

다. 성직자가 동성 결혼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허용하는 주는 19 곳이며,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시시피,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워싱턴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18개 주만이 종교 시설을 강제 폐쇄 조치로부터 보호한다. 해당 주에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터키, 루이지애나, 몬태나,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에 속해 있

다. 일리노이주를 제외하고 종교 자유 문제에서 최소 50%의 점수를 받은 주는 플로리다(73%), 몬태나(66%), 아칸소(66%), 미시시피(65%), 오하이오(65%), 사우스캐롤라이나(64%), 유타(61%), 워싱턴(59%), 메릴랜드(58%), 뉴멕시코(56%), 노스다코타(52%), 하와이(51%)가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와 함께 최하위 10개 주는 알래스카(29%), 캘리포니아(29%), 버몬트(29%), 와이오밍(30%), 뉴욕(33%), 뉴저지(33%), 콜로라도(34%), 미시간(35%), 뉴햄프셔(35%)이다.

다. 일리노이주를 제외하고 종교 자유 문제에서 최소 50%의 점수를 받은 주는 플로리다(73%), 몬태나(66%), 아칸소(66%), 미시시피(65%), 오하이오(65%), 사우스캐롤라이나(64%), 유타(61%), 워싱턴(59%), 메릴랜드(58%), 뉴멕시코(56%), 노스다코타(52%), 하와이(51%)가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와 함께 최하위 10개 주는 알래스카(29%), 캘리포니아(29%), 버몬트(29%), 와이오밍(30%), 뉴욕(33%), 뉴저지(33%), 콜로라도(34%), 미시간(35%), 뉴햄프셔(35%)이다.

강혜진 기자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연령, 인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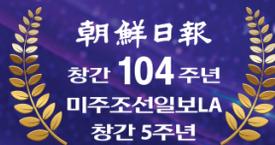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높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미주조선일보LA 창간 5주년 기념

미스트롯3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Live in LA

NOW
TICKET
OPEN

GALA/DINNER SHOW

10월 12일 <토> 6 PM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WILSHIRE GRAND BALLROOM II

900 WILSHIRE BLVD, LA, CA 90017

LIVE CONCERT

10월 13일 <일> 6 PM

SHRINE
SHRINE AUDITORIUM

665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창간 5주년 기념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LA

\$50~\$350



chosunticket.com



axs.com

\$50 | \$65 | \$70 | \$75 | \$85 | \$90 | \$100 | \$110 | \$115 | \$120 | \$125 | \$150 | \$175 | \$180 | \$200 | \$225 | \$250 | \$275 | \$300 | \$350

LIVE CONCERT 10월 13일 일요일 6 PM **미스트롯 3 LA 공연 예매처**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상호	전화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삼호관광 LA점	(213) 427-5500	2580 W. Olympic Blvd. Unit #2, LA, CA 90006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213) 387-7733	965 Normandie Ave. STE 200, LA, CA 90006
한남체인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태양 여행사	(213) 252-9700	303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한남체인 델라모점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한우리여행사	(213) 388-4141	1001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석훈의 천종산삼 LA-윌셔점	(213) 388-1234	3906 Wilshire Blvd. LA, CA 90010	장석훈의 천종산삼-부에나파크점	(562) 902-1235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장석훈의 천종산삼 LA-올림픽점	(213) 388-1234	2717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도르가 서점-가든그로브	(714) 636-7430	911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점점 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미국의 기독교 세계관 연설가 제이슨 지메네즈(Jason Jimenez)가 '오늘날에 더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라는 칼럼을 크리스천포스트(CP)에 기고했다.

제이슨 지메네즈는 스탠드스트롱미니스트리스(Stand Strong Ministries)의 설립자 겸 사장이자 '서밋 미니스트리스'(Summit Ministries)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무신론이 현대 사회, 특히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과 모순되는 흥미로운 경향이 있다"며 "과거에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점점 세속화되는 사회에서 과거 무신론자들이 신앙으로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스틴 브라이얼리(Justin Brierley)의 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놀라운 부활: 왜 새로운 무신론은 쇠퇴하고 세속적 사상가들이 다시 기독교를 고려하는가』를 인용하며 이 책이 "무신론의 부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

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스틴이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배경의 무신론자들과 대화하고 인터뷰하면서 눈에 띄는 점은 그들의 어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무신론자들과 기독교 변증론자들 간의 과격한 논쟁은 훨씬 덜 발생하고 있다"며 "그 자리에 기독교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해 더 개방적인 세속적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신앙은 없지만, 사회가 정체성 기반 정치의 취소 문화(Cancel Culture)로 변해가는 것을 우려하며, 때로는 세속적 동료들보다 기독교 대화 상대들과 더 많은 공감대를 느끼게 된다"고 했다.

지메네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의 전환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정답은 분명히 없다"고 말하며 "저스틴은 과학만으로는 우주의 신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부터, 이전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강력한 만남이나 계시, 유물론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더 심오한 의미와 연결에 대한 갈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깨우치고, 믿음의 이유에 대해 열린



©Greg Rakozy/ Unsplash.com

마음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주요 사례로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를 소개했다. 지메네즈는 그녀가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 무신론은 우리를 문명 전쟁에 대비시킬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학계와 전 세계의 많은 무신론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했다.

그는 "알리가 기독교로 전환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급진적인 이슬람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무신론 밖에서 도덕적 확실성을 찾으려 했으며, 마침내 기독교 이야기에서 희망과 영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신론의 주요 옹호자이자 『무신론자를 만드는 매뉴얼』이라는 책의 저자인 피터 보고시안

박사를 예로 들었다. 지메네즈는 '보고시안은 종교적이지 않지만, 그의 언어는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었다. 이전에 그는 기독교와 그 추종자들을 과학, 진실, 합리적 사고의 주된 적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았다'며 "현재 그는 좌파 이념가들이 제기하는 진짜 위협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이요나 목사의 따뜻한 배려로 탈동성에 성공”

故 이요나 목사 임관예배... 성도와 지인들, 고인 추모

동성애자였다가 이를 극복한 뒤 탈동성에 인권운동을 펼쳤던 갈보리채플서울교회 담임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가 향년 76세로 7월 30일 별세했다.

고인은 생전 폐암 투병을 해왔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31일 임관예

배가 열렸다. 이날 예배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대안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김병연 목사는 이요나 목사의 30년 지기라고 한다. 김병연 목사는 "한 주에 2번 정도 이요나 목사와 통화했다. 이요

나 목사는 돌아가기 직전 3주 동안 설교를 못 하셨다. 이 목사는 밤에 잠 못 자고 마약성 진통제도 듣지 않는데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했다.

이어 "이요나 목사는 폐암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안식을 누릴 것을 믿자. 우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며 "갈보리채플교회의 남은 성도들이 이 목사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이들이 되자"고 했다.

이날 이요나 목사를 추모하려 온 지인들이 이 목사를 추모하는 말을 남겼다. 갈보리채플서울교회 성도 최 모 씨는 "이요나 목사님은 거짓이 없으셨다. 항상 우리를 편안하게 친구처럼 대해주셨다.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셨다"며 "이 목사님은 동성애자 출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 탈동성에 성공하셨다. 이 목사님은 동성애자들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회

복할 수 있도록 여생을 보내셨다"고 했다.

갈보리채플서울교회 성도 윤 모 씨는 "제가 동성에 문제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으로 궁지에 몰린 20년 전, 이요나 목사님은 저를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주셨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동성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목사님의 삶을 통해 찾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당시 갈 곳이 없었다. 목사님은 당신의 집에서 6개월 동안 제가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며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시기, 목사님으로 인해 평안할 수 있었다. 이 목사님과 함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인생이 회복됐다"고 했다.

이요나 목사의 동생 갈보리채플이화찬 장로는 "형이랑 같이 이태원 트랜스젠더 바를 운영했고 이요나 목사께서 탈동성에 성공하면서 저 또한 예수를 믿게 됐다"며 "외부 단체의 도움이나 재정 지원이 없이 이 목사님은 홀로 몸으로 뛰며 탈동성에 사역을 하셨다. 청년들의 동성에 탈출에 헌신하셨다. 암 투병이라는 어려움에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사역하셨다"고 했다. 그는 "갈보리채플서울교회가 부흥해서 탈동성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마음의 치료를 받고 탈동성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

40대 초반에 동성애에서 벗어난 이요나 목사는, 갈보리채플서울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며 동성애자와 탈동성애자를 위한 성경적 상담과 치유 사역을 진행했다. 또한, 그는 매년 귀어축제가 열리는 날에 서울 종각 근처에서 '홀리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탈동성애를 호소했다. 또한 감리교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적 동성애 대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노형구 기자



이요나 목사의 빈소 모습.



2024 SPECIAL PROMOTION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교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 70% “공공생활에서 소외감 느껴”



스코틀랜드 에어셔에 있는 베이스 교구교회 전경. (기사와 관련 없음) ©구글맵

최근 스코틀랜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공 생활에서 소외감을 뚜렷하게 느낀다는 답변이 확인됐다.

영국 매체 헤럴드에 따르면, 1천명이 넘는 스코틀랜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70% 이상이 스코틀랜드 정부가 자신들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기독교인 응답자 중 4분의 3은 기독교 정치인을 향한 괴롭힘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약 7명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태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가 “대중 앞에서 신앙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고 답했다.

기독교가 아닌 응답자들은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대다수가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기독교 싱크탱크인 로고스 스코틀랜드(Logos Scotland)가 실시했다.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수상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관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쇼나 하슬람 로고스 CEO는 “이번 조사 결과는 스코틀랜드의 활기찬 기독교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소속으로 인해 케이트 포브스 의원에 대한 적대감이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나태와 동성혼에 대한 그녀의 기독교적 신념에 대한 적대감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최신 스코틀랜드 인구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 스코틀랜드인이 처음으로 종교인보다 많아졌다. 스코틀랜드 교회에 속한 스코틀랜드인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32.4%에서 20.4%로 감소했다. 하슬람은 “스코틀랜드인 3명 중 1명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앙 집단에 대한 관용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스위니 수상은 새로운 리더십 하에 보다 포용적이고 통합된 정부와 국가를 약속했다.

이 데이터가 모든 스코틀랜드인, 특히 기독교인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안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라오스 목회자, 괴한 총격에 사망



(오른쪽부터) 통감 필라반 목사와 그의 아내

라오스의 한 목회자가 북서부 방하이 마을에 위치한 자택에서 얼굴을 가린 두 명의 괴한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통감 필라반 목사(40)는 가족에게 사료를 주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가해자들은 도주했고 그는 지방의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두 명의 10대 자녀들이 있다.

현지 경찰은 2022년 10월 라오스 중부 캄무안주 돈 케오(Don Keo) 마을의 시토우드(Seetoud) 목사가 고문을 받고 살해된 이후 우돔사이주 샤키 지구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 관리들은 그에게 모든 기독교 모임과 활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해범들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통감 목사는 라오복음교회(LEC) 크무부족 지도자이자 지방의 수장이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 영화를 상영했으며, 목사들을 위한 훈련도 진행했다. 지역 기독교인들에 따르면, 통감 목사는 당국의 면밀한 감시를 받았으며 ‘기독교 활동’을 중단하라는 경고로

수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전역의 기독교인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 고인을 추모했다.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에 “그의 심오한 지혜, 변함 없는 믿음, 무한한 긍휼은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글을 남겼다. 지역 관리들은 기독교인들을 마을에서 몰아낼 뿐 아니라, 그들의 집과 쌀 저장고를 허물고 불태워 머물 곳을 없앴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에

관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소 없이 방치 중이다. 통감 목사의 살해 이후 기독교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증가했다. 대부분 지도자들은 여행할 때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동료들과 끊임없이 연락하고 있다. 라오스 중부 캄무안주 바오족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오 형제(Brother Oh)도 정부 요원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간신히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소식통에 의하면, 그는 가족, 친구로부터 당국이 그를 납치해 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기독교인들은 “오 형제와 그의 아내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무리의 남성들을 보고 피신했다”고 말했다. 라오스 교회는 박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수백 명의 크무족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있다.

제자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팀에 의해 개최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크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매일 기독교 방송이 생중계되는데, 팔로워가 수천 명에 이르며 3일간 1만 명이 시청했다. 한편 라오스는 2024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21위를 기록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물론인) 01:20 (화-토) - 오전 6:00
3부예배(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1세대)을 위로하며, 선교를 영혼을 승려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CMC 중보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549-9191 / F. (818)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회 오후 7:00
3부 E/M(대.청)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삼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생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신도교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희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명(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미 남침례회, 프랑스에 선교팀 파견 “파리서 복음 전할 것”



미국 남침례회 선교팀이 파리 교외 안토니침례교회에서 어린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벤티스트프레스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막한 가운데, 미국 남침례회(SBC) 소속 교회들이 파리로 이동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미국 벤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텔레비치의 아이티계 교회인 베델 북침례교회도 그 중 하나다. 에벤스 쉐담임목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소식을 듣고 프랑스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과 협력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쉐 목사는 6월 말과 7월 초에 18명의 선교팀을 이끌고, 파리 교외에 위치한 앤토니 침례교회와 함께 다양한 전도 활동을 도왔다. 이들은 복음 전도지와 신약성경을 배포하고,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전도 축제를 지원했다. 쉐는 그의 교회가 매년 국제 선교 여행에 참여하며, 올해는 올림픽 덕분에 파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교팀이 주민들과 함께 전도 및 사역 활동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경기를 관람하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도록 주님께 간구한다”고 했다.

앤토니 침례교회의 스테판 폴레가도 목사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폴레가도는 “우리는 거리에서 7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을 했다”며 “교회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작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각 참가자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큰 격려가 되었다”고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프로비던스 침례교회에서 온 고등학생 팀도 플로리다 팀과 함께 앤토니 침례교회를 도왔다. 프로비던스 교회의 학생부 목사인 에반 스미스는 그의 학생들이 올림픽 테마의 핀을 활용하여 전도를 촉진했다고 말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도시에서 핀을 나눠주는 활동은 꽤나 인기가 있다.파리의 국제선교위원회 직원들이 제작한 핀 중 하나는 프랑스어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올림픽 성화 모양의 핀이다. 다른 핀에는 “나는 길이다”와 “나는 포도나무다”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으며, 색상별로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스미스는 “이 핀들이 우리가 그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다리가 되었고, 이를 통해 매우 부담 없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스미스는 그의 팀이 앤토니 침례교회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두 가지 행사를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북침례교회를 방문한 경험이 없었고, 이 행사들은 그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교 활동이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고등학생들이 친구들과 그들의 신앙을 나누는 데 움츠러들기 쉬운데도, 세계 반대편으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려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했다.

폴레가도는 자신의 교회와 협력한 미국의 선교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프랑스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덜 신경 써도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올림픽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창의성을 발휘하며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130여 년 역사 예배당 화재로 파괴된 美 제일침례교회 “재건할 것”

미국 델러스 제일침례교회 교인들이 모여 역사적인 예배당을 잃은 것을 애도했다. 일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최근 제일침례교회의 역사적인 예배당이 대형 화재로 인해 파괴됐다.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중 하나인 이곳은 1868년 설립됐으며, 해당 예배당은 1890년에 지어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목사는 지난 7월 21일(이하 현지시각) 주일 오전 케이 베일리 허치슨 컨벤션 센터에서 드린 예배에서 “그 불꽃이 마치 지옥의 불꽃을 상징하는 것 같았고, 생명과 영원을 걸고 믿었던 진실을 파괴하고 있었다”고 했다.

제프리스 목사는 교인들에게 엄숙하면서도 희망에 찬 말씀을 통해, 그들의 슬픔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느꼈을 ‘절망과 낙담의 감정’에 비유하면서, 그 감정이 곧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밤, 지옥의 문이 더

강해 보였고 사탄이 이길 것 같았다”며 “그것은 금요일 밤이었으나,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은 주일 오전이다. 부활의 날이다. 죽음의 날이 아니다. 여러분께 맹세한다. 우리는 그 예배당을 재건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 불변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내의 상징으로 재창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사탄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만약 그것을 폐허로 남겨둔다면, 온 세상에 마치 우리가 악한 자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건하고, 재창조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여 상황을 회복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예배 후 제프리스 목사는 모든 참석자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라”는 가사가 울려 퍼지자, 참석자 대부분 손을 모아 연대와 경배를 표했다.

한편 델러스 소방구조대 측은 CP와 인터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ATF)과 FBI가 최근 수사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강해진 기자

탈기독교 심화되는 캐나다 두 가지 희망은...



©Jp Valery/ Unspalsh.com

알파 캐나다(Alpha Canada)와 플라리싱 콩그리게이션 인스티튜트(Flourishing Congregation Institute)가 캐나다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Reigniting Hope: Sharing the Good News in Canada in 2024'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캐나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더 이상 종교적인 관계를 맺지 않음을 있음을 인정하고 캐나다를 탈기독교 사회로 봤다. 그러나 또한 비신자들 사이에서 신앙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대한 이 연구 보고서는 2021년에 최초로 작성됐다. 올해 업데이트된 설문조사에서는 캐나다 전역의 전도에 관한 태도, 행동 및 경험을 살펴봤다.

연구자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이용, 캐나다의 수천 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냈고, 그 가운데 총 823개의 설문조사가 완료됐다. 이 설문조사는 캐나다 교회 지도자 네트워크, 캐나다 복음주의 펠로우십, 비복음주의 전통 일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독교 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알파 캐나다의 전국 이사인 샤일라 비셔(Shaila Visser)는 보고서 서문에서 "기도는 모든 사역의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존성을 가져온다"고 했다.

비셔는 "초대(invitation)의 능력은, 신앙을 알아보려는 개인적인 초대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장벽을 허물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열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삶과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변혁적 사역을 기념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에 목적을 부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여행할 수 있어 기쁘고, 캐나다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 교회 지도자의

35%는 복음 전파의 주요 장벽으로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적대감'을 꼽았으며, 캐나다 인구의 33%(1,260만 명)는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불가지론이나 무신론과 같은 세속적 신념에도 무관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성향은 지난 2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탈기독교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작성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두 가지 "예상치 못한 희망으로 가득한 다수"라는 주제에 주목했는데, 첫째는 캐나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개방성과 호기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 둘째는 캐나다 전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전도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선교에 대한 명확성과 헌신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주제는 더 많은 교회가 지금 행동하고 변화하는 문화적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나타낸다.

지난 3년 동안 신앙에서 떨어진 기독교인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더욱 호기심을 갖게 됐다고 답한 70%도 이러한 '영적 개방성'에 포함됐다. 응답자의 약 60%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에 더 개방적이라고 했으며, 절반 이상(56%)은 그들이 실제로 교회 건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도는 캐나다 교회에서도 더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교회 지도자의 58%가 전도 활동이 증가했다고 했고, 92%는 전도가 사역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를 교회 전도에 대한 새로운 헌신과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교회 지도자의 약 62%는 "교회 내 교제가 매주 전도 행사의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 교인들에게 전도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한다"는 데 동의했는데, 이는 2021년 44%보다 증가한 것이다. 또 다른 고무적인 변화로 무종교인과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교회 지도자들이 31%에서 5%로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이미경 기자

美 전도자, '동성애는 죄' 문구 옷 때문에 식당서 거부당해

미국의 한 거리 전도자가 최근 '동성애는 죄'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단체 '워리어스 포 크라이스트'(Warriors for Christ)를 설립한 거리 설교자 리치 펜코스키(Rich Penkoski) 씨가 '동성애는 죄'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위스콘신주 워나키에 위치한 서브웨이 매장에 들렀다가 서비스를 거절당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펜코스키 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 계정에 공유했는데, 그 영상에는 한 여성 직원이 "이건 개인적인 문제다. 나는 당신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나의 시민권이 침해당했다. 서브웨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동성애 이념에 반대하는 이들이 역차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만약 누군가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식당 서비스를 거부당한다면, 그 매장 직원은 해고되거

나 소송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평등을 원한다면, 기독교 신념을 믿는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테네시주 리빙스턴의 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펜코스키 씨의 딸 브리엘 양도 비슷한 사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엘 양은 '동성애는 죄'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로부터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펜코스키 씨는 "내 딸은 스스로 이 옷을 입고 싶어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이 믿는 가치를 옷에 표현하기 원했다"며 "운동화와 옷에 동성애 상징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받지만, 브리엘은 역차별을 당했다"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적힌 내용을 주장하면, 그들은 편협하고 증오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며 "단순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은 증오 발언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톨릭)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태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아기돌) 오전 11:00 영아부(말씀체류)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영년 오후 12: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11:15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일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새벽기도회 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8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금요일(영미)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어 영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요일 오후 8:00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금요일(월)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

OC예배 오후 7:30 수요일(월) 오후 8: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한어 영년부 주일 오후 1: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주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o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박편,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합술 \$8.80
D3 5000 IU 선사한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합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른바다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문화적 기독교는 임시 정거장일 뿐”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박사가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가운데, ‘문화적 기독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칼럼이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실렸다.

이 글을 쓴 폴 굴드(Paul M. Gould) 교수는 미국 팜비치 애틀랜틱 대학교 종교철학 부교수이자 종교철학 석사 과정 책임자이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악명 높은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발언이 최근 화제가 되었다. 도킨스는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둔 문화에서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문화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기독교적) 문화에서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선했던 문화유산 중 하나인 기독교 휴일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관습을 매력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도킨스는 기독교를 진리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에게 말도 안되며, 터무니없는 거짓일 뿐이다. 자연주의에서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일종의 종교적 무신론을 마주하게 된다. 리처드 도킨스는 기독교 자체를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나는 이러한 발언에서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본다. 이를 분석해 보자.

첫째, 기독교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반대 의견이 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비합리적이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기독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바람직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나는 도킨스가 세 번째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그는 기독교가 비합리적이고 해롭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2006년 저서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에서 이 주장을 확고히 했다. 그 책에서 그는 종교는 비합리적이고 해로운 것으로 간주했고,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함께 묶어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도킨스는 적어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더라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진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는 기독교가 좋고 아름답다고 믿지만, 진실은 아니라고 여긴다. 나는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이 기독교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유명한 방안을 떠올려 본다. 그는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종교를 경멸하고, 싫어하며, 그것이 진실일까 두려워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먼저 종교가 이성에 반하지 않고, 경의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종교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선한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기를 바라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파스칼은 기독교를 옹호할 때 먼저 기독교가 합리적임을 입증하고, 다음으로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오늘날과 같이 필요와 감정, 욕구, 미적 차원에 중점을 두는 시대에서는 파스칼의 엄격한 순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독교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많은 이들이 이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 전반과 기독교의 강력한 비판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기독교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언급한 것을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다. 그가 기독교의 선함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비판을 읽었던 많은 이들이 예수와 복음의 주장을 다시 고려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둘째, 선함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선과 진리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도킨스는 기독교가 선하며 세상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그가 기독교를 명백한 거짓으로 간주하면서도 왜 세상에 유익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날이 올 것이다. 어떤 종교나 세계관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기독교를 세상에서 제거한다면(도킨스의 관점에서) 어떤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객관적 가치 개념은 도킨스의 자연주의와 모순된다.

도킨스는 여러 곳에서 자연주의, 특히 환원적 유물론임을 감안할 때 객관적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킨스의 주장에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입장이다. 그는 기독교의 선함과 자연주의의 진리를 동시에 원하지만, 이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없다. 이는 문제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적 기

독교를 현실적인 목적지로 여기는 도킨스와 다른 이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목적지가 될 수 없다. C. S. 루이스(C. S. Lewis)는 항상 진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1945년 루이스는 성공회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청중의 마음 속에 진리에 대한 질문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그들은 기독교를 추천하는 이유가 진리 때문이 아닌 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토론 중에는 항상 그들은 ‘진리가 거짓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 좋은 사회, 도덕, 사제들의 수입, 스페인 종교 재판, 프랑스, 폴란드 등 다른 이야기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그들을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되돌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종교가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중요하지 않지만, 참이라면 무한히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말해야 한다. 기독교는 결코 적당히 중요할 수 없다.

물론 루이스가 옳다. 기독교의 선함이나 바람직함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또 다른 거짓된 방법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성적이고 궁극적인 진리의 문제로 되돌려야 한다. 기독교는 선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익하다. 만약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 즉, 진리와 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기독교를 탐구의 여정에서 일종의 목적지나 발견의 중간 기착지로 간주한다면, 이는 막다른 길을 의미한다. 이는 또 다른 거짓된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문화적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는 길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한 임시 정거장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기독교라는 개념에는 문화의 많은 것들처럼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그것을 확립되고 일관된 입장으로 받아들이자면 나쁜 일이지만, 다른 이들이 기독교와 진리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된다면 좋은 일이다. 우리는 후자가 사실이기를 바랄 뿐이다.

기독교 신앙의 바람직함과 합리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

김유진 기자

무료 일일 관광 큰 호응 속 마무리

미션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게티 빌라

지난 7월 30, 31일 두차례에 걸친 센터메디컬그룹의 무료 건축과 유적 일일관광이 뜨거운 반응 속에 마무리 되었다.

가입환자들과 가족, 짝꿍을 무료 관광을 보내준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진행되었던 꽃놀이 관광의 두배가 되는 예약 참가자들로 진행되었다. 상호관광과 계약을 맺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신형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전문 가이드가 안내하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체크인 시간 전부터 대기하던 예약자들과 가족들은 센터메디컬그룹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섬김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고 전해왔다.

센터메디컬그룹측에서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점심은 뷔페식으로 대접하였다.

미주에서 유일하게 시니어들만을 위해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한인 메디컬그룹인, 센터메디컬그룹의 창립 10주년으로 기획된 이번 관광은 4월과 다른 테마로 오



센터메디컬그룹에서는 7월 30일과 31일 가입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일일 관광을 실시했다. ©센터메디컬그룹

렌지카운티 탄생지로 미션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30일, 캘리포니아의 유럽인 게티빌라 31일로 많은 예약자가 몰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행사는 오직 센터메디컬그룹에서만 진행하여, ‘역시 시니어를 생각하는 메디컬그룹’답다는 평이 많았다. 가족, 짝꿍과 함께 관광할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가입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배려한 이번 관광을 통해 센

터메디컬에 감사를 표했다. 10년 동안 시니어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센터메디컬그룹이 내부에서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환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같은 무료행사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있다. 센터메디컬그룹의 혜택이 궁금하다면 문의전화로 예약과 문의를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행사 및 혜택 문의 (888-847-3098).

사설

신성 모독이 올림픽 정신인가

파리올림픽이 개막식에서부터 온갖 구설수에 휩싸였다. 근대 올림픽 시작 이래 처음 경기장이 아닌 야외에서 개최식을 진행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센강에서 배를 타고 입장하는 우리 선수단을 “북한”으로 호칭하는 실수를 저지르더니 개막식 공연에 트랜스젠더를 등장시켜 동성애와 젠더주의를 대놓고 찬양함으로써 반 기독교 조류에 침몰해 가는 프랑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파리올림픽의 오점은 개막식 공연에서 여장 남자(드래그 퀸)와 트랜스 젠더 모델을 등장시켜 패러디 형식으로 재현한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광경에 비하면 미미한 서막에 불과했다.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병에게 체포돼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을 그린 세계적인 명화다. 기독교 메시지가 함축된 이런 명화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동원해 조롱하고 희화화한 건 기독교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 해도 달리 할 말이 없다.

전 세계가 경악한 반 기독교 공연에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영국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들은 ‘최후의 만찬’ 묘사를 “음란”이라 규정하고 “기독교에 대한 공개적인 경멸의 표현”에 대한 주죄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개최국인 프랑스 주교회는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이 포함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특정 장면의 과잉과 도발로 인해 상처받은 대륙 전역의 모든 기독교인을 생각한다”라고 했다.

국내 연합기관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교총은 29일 자 논평에서 “파리올림픽 개최식이 기독교에 큰 수치를 안겼다”면서 “스스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무도하게 공개적으로 모욕함으로써 올림픽의 미래를 어둡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다 못해 동성애자들을 이용해 능멸하고 짓밟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곤 하는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중노릇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기총도 30일자 논평에서 “파리올림픽 개최식을 자유와 관용의 표

현이 아닌 폭력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폭거에 단호히 맞서서 진정한 관용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낳은 이런 논란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덮고 넘길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 실수라면 사과를 받고 넘길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신성을 모독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는 ‘표현의 자유’를 방자해 기독교를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연출이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근대 올림픽은 1896년 4월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출발했다. 그때 그 올림픽 정신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인의 스포츠제전을 성 소수자와 젠더주의자들의 잔치로 전락시킨 건 근대 올림픽 창시 이후 최악의 오명으로 기록될 중대 사건이다.

혹자는 파리올림픽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동성애를 찬양하는 각종 장치가 동원된 것을 두고 기독교가 동네북 신세가 됐음을 한탄한다. 불법 이민으로 이미 이슬람에 지배당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후환이 두려워 이슬람을 피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1793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의 목을 베고 난 후 프랑스 전역이 혼돈과 파괴, 마비 상태에 빠졌던 그때와 오늘 프랑스 사회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동성애를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사회 현상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저질러선 안 된다고 명시한 가증한 죄악을 어떻게든 숨기고 변명하려는 인간의 죄성이 숨어 있다. 죄악이 양심과 충돌하면 돌이켜야 하는데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게 반기독교 정서의 특징이다.

하지만 동성애와 젠더주의가 왕성한 사회일수록 그 끝이 보인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한다고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다간 소돔과 고모라처럼 순식간에 흔적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다. 문화의 도시, 패션의 도시를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듣고 음란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할 뿐이다.

신성모독 칼럼

더 이상 비난의 화살은 멈춰주길..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2024 파리 올림픽’에 48년 만에 최소 인원을 보낸 대한민국 선수단이 대회 초반에 터진 메달 세레로 애초 목표로 내건 금메달 5개를 훌쩍 뛰어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뿐 아니라 대회 4일 동안 딱 한 번 2위로 떨어진 이후 지금까지 금메달수 집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꿈같은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엔 대한민국 남녀 양궁 선수들의 역할이 컸다.

지난 28일, 여자 양궁 단체전에 이어 남자 단체전까지 금메달을 따는 등 양궁이 효자종목으로 등극했다. 아주 먼 옛날, 활과 화살은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쏘던 무기였다. 적의 가슴을 향해 쏘서 맞히면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는 끔찍스런 무기로 활용되어왔다.

아주 먼 옛날, 활과 화살은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쏘던 무기였다. 적의 가슴을 향해 쏘서 맞히면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는 끔찍스런 무기로 활용되어왔다. 양궁은 화살로 과녁을 향해 쏘는 경기이다. 그런데 화살로 과녁이 아닌 사람을 향해 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 그는 상해를 입힌 죄를 물어 교도소로 가야 할 것이다.

지금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양궁 선수가 아님에도 사람을 향해 무시무시한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악인들이 있다. 개중에는 한 개인도 있지만, 방송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튜브버들도 있다.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악의의 화살을 날려댄다면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이 재미 삼아 던지는 돌에 개구리는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의 사임 이후 수많은 돌에 맞아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인 분이 한 분 계신다. 바로 지구촌교회의 원로인 이동원 목사이다. 진OO 전임 목사가 사임했을 때도 그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모든 화살을 홀로 맞으신 분이다.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후임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되니 이전보다 더 많은 화살이 원로 목사에게 쏟아지고 있다.

나는 이동원 목사보다 누구보다 친한 사이이다. 때문에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분의 얘기를 많이 알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 그분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 일어난 상황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경고 고통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진 목사의 사임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아오는가 하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대장암으로 천국에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다. 당시 유튜브버들 한 명이 이동원 목사님과 그분의 아픔에 대한 글

을 써서 올린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제 목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유튜브 방송인데, ‘이동원 목사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란 제목으로 우리 두 사람을 심각하게 비난하고 모독했다. 이 목사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해도 자식을 잃은 이를 향해 그런 제목을 붙여서 비판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 자에게 본패를 보여줘야 또다시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목사와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다가 만 적이 있다. 진 목사가 사임했을 때 이 목사는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를 쫓아냈다는 비난을 홀로 받으셨다.

이후 새로운 후임이 와서 5년간 지구촌교회를 맡아 목회를 했다. 이번 만큼은 후임이 용런하기를 이 목사는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후임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원로 조차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또다시 사임이라는 수난을 지구촌교회가 경험하게 된 것이다. 과거 진 목사 사임 이후 이 목사는 후임 선정에 조금도 개입하지 않기로 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다 보니 청빙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하여 오늘의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준경 받는 원로 목사가 후임 청빙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책임을 홀로 뒤집어쓰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는 최 목사가 잘 되기를 다음과 같이 바라고 있다. “나를 향한 무지막지한 유튜브버들의 집중 화살이 지나간 뒤야야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듯...” “바보 이동원”이라 소리치고 싶다.

악의에 찬 마음으로 이동원 원로 목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원로 목사가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방송을 하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죄 없는 이동원 목사에게 화살을 쏘아대지 마라. 그는 한국 교회와 후배 목회자들이 귀감으로 존경하며 따라야 할 큰 바위 얼굴이다. 그분이 교회를 그만두면 지구촌교회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엔 없는 영웅도 만들어내긴 만 우리나라는 있는 영웅도 추락시키는 못된 습성을 갖고 있다. 이동원 목사가 후임에게 성도들의 마음이 옮겨가도록 그렇게 좋아하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끊고 머리 염색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무실도 분당 지구촌교회 내에서 미금역 맞은편 작은 교회를 사서 옮기는 일들을 해왔다. 이렇게 후임을 배려하고 사임 후에도 후임에게는 화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목사가 내가 아는 이동원 목사의 실체이다.

이동원 원로 목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는 개인이나 유튜브버들에게 권고한다. 그대들이 쏘아대고 있는 날카로운 화살에 지긋지긋 곁손하고 깨끗하게 말씀 선포와 교회 부흥에 선한 영향을 끼쳐온 한 영웅이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국 교회가 소중하게 존중해야 할 자산인 이동원 원로 목사를 향한 비난이나 부정적인 언사를 더는 멈춰주기를 간곡히 간곡히 권고한다.

2024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Talbot 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정회원.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미션 컨퍼런스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세부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
www.tmtc.co.kr



주제 “디아스포라 복음통일연합방안”
“다음세대와 복음통일방안모색”

기간 _ 2024. 10월 29일 ~ 11월 1일

장소 _ **방콕한인연합교회**(신상태 담임목사)
63, SOI 44, PHATTANAKARN RD;
SUANLUANG, BKK 10250
(숙박장소_THAYA HOTEL BANGKOK)

대상 _ 담임목사 / 북한선교담당자 / 위 주제 관심자 모두
참가비 _ \$250(30만원)/1인

* 추가음선일정(11월 1일~3일, 탈북루트 치앙라이 외 1곳) _ 등록사이트 참조



주최 | 글로벌복음통일미션네트워크

협력 | 방콕한인연합교회

주관 | TMTC | Total Mission Training Center
(사)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협찬 | BELL INTERNATIONAL ACADEMY

기드온동작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교일보

문의 | 대회본부 (425)775-7477 | 개최교회 (093)139-6520 | 기타 (82)10-9294-3242

김인수 목사의 오늘의 묵상

미국과 이민(移民)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야고보서 2:1,9)

미국이 이민에 의해 세워진 나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대륙의 첫 번째 이민은 1607년 5월, 현재의 Virginia의 어느 지점(Jamestown)에 도착한 104명이 시작입니다. 그 후, 1620년 영국의 Plymouth 항구에서 출발한 35명의 청교도들과 67명의 일반인들이 보스턴 근처 해변에 도착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본디 미국에는 아메리칸 인디안들 만 살았

는데, 영국을 비롯한 구라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몰려 왔습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식민지는 아프리카에서 수 백 만 명의 흑인들을 잡아와 노예로 부리면서 농사를 비롯한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지금도 계속 되어 전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이민 문제는 불법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금년(2024)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남부 국경선을 불법으로 넘어 들어오는 남미와 기타 세계 여러 나라 이민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면서 미국 백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 중에는 죄수들, 살인자들, 마약 거래자들, 정신병자들,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이 많으며 이들은 미국을 망치는 분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미국 시민 여론 조사에서 무엇이 미국의 급선무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0%가 이민 문제라고

답하여, 경제라고 대답한 14%보다 6%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일까요? 필자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와서 신학교 건물 공사를 했는데, 건축, 전기, 상하수도, 페인트, 카펫 등 모든 공사 계약은 한국 사람이 하고, 정작 힘든 일은 히스패닉들이 주로 했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거의 모든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히스패닉들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은 히스패닉들이 건설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2019년 이후 미국의 이민자 수는 1,000만 명이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미국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백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을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백인들은 자기의 직장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이민자들이 하는 일은 대개 백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소위 3D(Dangerous, Difficult, Dirty)업종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민자 대부분이 미국의 3D 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 근로자 연령층이 25세에서 54세로, 이들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해서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고, 은퇴자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看過:대충 보아 넘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민자 문제의 부정적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민자들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浮刻)시키면 이민자는 단 한 사람도 미국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이 만일 이민을 받지 않고, 백인들만 산다면 백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나라 자체가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많은 나라의 이민자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혼혈 결혼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하셨을 때는 인간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로 언어가 혼잡해 지면서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인류가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는 나와 혹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사느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모두 한 가족(갈 3:28)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차별의 정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실현해 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살롬.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본향을 향하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하여 잘못된 모습으로 비추는것 같아 우리에게 큰 아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 공연의 주인공인 공연예술가 필립 케서린(Philip Catherin) 이 한 말입니다. “솔직히 논란이 없었다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갖고 이 땅에 있다면 그건 또한 다른 파시즘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날 시대정신의 한 면을 대변해 주고 있는 씩씩한 모습입니다.

일찍부터 그 시대의 사조를 선도해 간다고 자부하고 있는 프랑스 민족은 중세 시대 이후 강하게 부각된 주 종 관계의 불평등한 봉건주의(Feudalism) 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18 세기 후반 평민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이 토론의 장으로 이끌며 살롱(Salon) 문화를 형성시키고 드디어 계몽주의(Enlightenment) 의 서막을 이끌었던 민족입니다.

계몽사상의 주 슬로건 즉,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하고 그 어느 것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를 가져야 할 권리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 아름다운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 이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빛나가고 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은 순례의 길이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반드시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순례의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작시자 김희보(1918-2002)가 쓴 글을 가지고 한국 교회음악의 선구자 김두완 작곡가(1926-2008)가 쓴 칸타타 “순교자”의 첫 번째 나오는 곡입니다. 이 칸타타 첫 페이지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복한 교회의 성직자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그의 아버지 되시는 김치근 목사 이십니다. 평안남도 용강 출신으로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북한군으로부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김두완 작곡가는 아버지를 추모하며 인생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쓴 곡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곡을 바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작곡하였기 때문에, 더욱 훌륭한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순례의 여정을 밟고 있는 우리 인생이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확인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큰 도전과 혼란함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으며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말씀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단 말입니다.

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박스에 담아놓은 내 사상 내 생각을 기준으로 감히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판단하려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라는 사실 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큰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D. L 무디(Dwight Lyman Moody, q837-1899) 선생님이 그의 인생 말년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머잖아 어느날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요. 믿지마십시오. 그 때 나는 그 이전에 어느때보다 생생히 살아있게 될 것이요.” 1945년 4월 어느날 두 명의 호송병이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를 교수대에 데려가려고 오자 감방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나는 끝이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네”

우리도 이 순례자의 길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지내다 인생의 끝자락에 이 두 믿음의 거장들이 고백한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축제인 2024 하계 올림픽이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축제의 서막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에서 펼쳐진 한 퍼포먼스를 사진으로 보며 필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구성하여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자리에 왕관을 쓴 여성이 두 손으로 하트모양을 만들어 서 있고 주위에는 드레그 퀸(Dreg Queen), 즉 여장을 한 남자들이 제자들의 자리에 앉고 서 있는 장면을 연출시켰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퍼포먼스를 한 모양새 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슬로건을 하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비유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뒹누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메디칼 그룹 주치의



한경모 Kyung Mo Han	조지 인 George In	백상현 Sang Hyun Baik	이영직 Young-jik Lee	이선우 Sonwoo Lee	강두만 Deno Kang	강훈구 Hun Ku Kang	다이아나 김 Diana Maria Kim
---------------------	-------------------	-----------------------	----------------------	-------------------	------------------	--------------------	---------------------------



카렌 김 Karen Kim	김경애 Kyoung Ae Kim	김성현 Sung Hyun Kim	김승현 Seung Hyun Kim	김영진 Evan Kim	김일영 Il Young Kim	김정한 Peter Kim	스티브 박 Steve Park	손향은 Hyang Eun Sohn
-------------------	----------------------	----------------------	-----------------------	-----------------	---------------------	------------------	---------------------	-----------------------



송명재 Mark M. Song	신동원 Dong Won Shin	로리 안 Lauri I An	안승록 Seung R An	윤은주 Eun Joo Yoon	잔 음 John Ehum	이용태 Yong Tai Lee	임대순 Dae Soon Rheem	임영빈 Justin Rheem
---------------------	----------------------	--------------------	-------------------	---------------------	------------------	---------------------	-----------------------	---------------------



임대순 Dae Soon Leem	정만길 James J. Jung	정준 Jun Chung	정희수 Hee Soo Jeong	조아라 Ahra Cho	주우진 Woojin Joo	프랭크 최 Frank Choe	허남형 Brian Huh	최순아 Soon Ah Choi
----------------------	----------------------	-----------------	----------------------	-----------------	-------------------	---------------------	------------------	---------------------



김홍식 Hong Sik Kim	폴 장 Paul S. Chang	하태준 Robert T. Ha	잔 김 John Kim	홍훈기 Hoon Gi Hong	김방선 Bang Sun Kim	송채원 Chaewon Song	강수웅 Soo Woong Kang
---------------------	----------------------	---------------------	-----------------	---------------------	---------------------	---------------------	-----------------------



김대중 Dae-choong Kim	김성현 Sung Hyun Kim	김종진 Jongjin Kim	김진세 Chin Se Kim	박재만 Jae Man Park	방재훈 Jason J. Pang	송명재 Mark M. Song	신창은 Chris C. Shin	안규동 Kyu Dong Ahn
-----------------------	----------------------	--------------------	--------------------	---------------------	----------------------	---------------------	----------------------	---------------------



안우성 Woo Sung Ahn	오문목 Moon M. Oh	이광혁 John K. Lee	이용호 Yong Ho Lee	이효구 Joseph Yi	알버트 장 Albert Chang	최원배 Wonbae Choe	리차드 한 Richard S. Han
---------------------	-------------------	--------------------	--------------------	------------------	-----------------------	--------------------	-------------------------



석태영 Larry T. Suk	임영빈 Justin Rheem	김학준 Philip Kim
---------------------	---------------------	-------------------



장국일 Kook Il Chang	리사 김 Lisa Kim	박성수 Richard Park	유경수 Kyung Soo Yoo
----------------------	------------------	---------------------	----------------------



백성렬 Jason S. Paek	변상준 Sangjun Byeon	오희용 Hee Yong Oh	신예용 Yeyong Shin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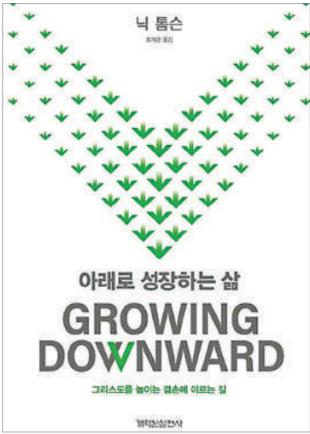
한인 의료진이 가장 많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서울메디칼 그룹이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389-0077 / 800-611-9862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좀 더 낮은 곳으로, 주님 가신 그 길로

겸손을 아무리 연구해도, 교만은 우리 속에 도사린다



가장 좋아하는 CCM 가사 중 '주님 가신 그 길은 낮고 낮은 곳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난 어디로 가나'라는 진솔한 고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명백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에게 품으라고 명령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동등함을 스스로 내려놓고 낮고 낮은, 비천한 종의 삶과 십자가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는 겸손한 마음이었다.

측면,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존재론적 차이에서 찾는 것은 정말 예리하고도 흥미로운 접근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낮아지려는 성향(17쪽)"이라고 겸손을 정의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부패함을 명확한 구분 없이 집어넣으려 한다.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광주청사교회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위 사진은 본 서평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광주청사교회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아래로 성장하는 삶을 사셨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래로 향하는 그 길과 참 멀어 보이는 길로 가려 하는 것일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옷을 입으려 하는 걸까?

하지만 저자는 먼저 하나님에 누구이신지, 실존적 접근을 한다. 쉽게 말해 범죄 이전에도 피조물에게 겸손이 요구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자기가 쌓은 공로를 내밀며 무죄 판정을 얻어내려 한단 말인가? 복음은 철저히 신자를 아래로 성장하게 만든다.

서신서에서도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섬기라는 권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항상 준비되어야 할 곳,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만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 고개를 쳐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야 한다.

〈아래로 성장하는 삶: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에 이르는 길〉 저자는 닉 톰슨(Nick Thompson)으로, '테네시주 코너스톤 장로교회 목사'라는 소개가 전부일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엘 비키와 함께 쓴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탁월한 지혜와 실력을 보여준 바 있다(언약, 2022). 그는 비키와 함께 〈창세기 가정예배〉라는 책도 공저했다(개혁된실천사, 2022).

사람은 죄의 결과, 그 대가로 겸손의 멍에를 매야 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그 아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자기를 인식하는 올바른 성향, 곧 낮아지려는 겸손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아래로 성장하는 삶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지, 그분이 맺으신 언약 아래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낮춘다.

겸손을 교회론과 종말론 관점에서 다룬 저자의 의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어둡하심과 자기 죄의 참상,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앞에 스스로를 낮추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겸손의 옷을 벗어버리고 높은 마음을 품기가 얼마나 쉬우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여러 번 꾸짖으셨고,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아래로 성장하는 삶

닉 톰슨 | 조계광역 | 개혁된실천사 | 296쪽 | 19,000원

"아래로 성장하라" 오늘날 우리는 위로 성장하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분투한다. 하지만 인생의 가치는 위로 성장하는 데 달려 있지 않고, 아래로 성장하는 데 달려 있다

아래로 성장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제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위로 성장하라고 외치지만 이 책은 "아래로 성장하라"로 외친다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13

May he strengthen your hearts
so that you will be blameless and
holy in the presence of our God and
Father when our Lord Jesus comes
with all his holy ones
1 THESSALONIANS 3:13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제2기 성경 필사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난 1기 성경필사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37명에게 전달했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승리의 열매가 맺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33명이 선정되어 2024년 7월 20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두가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1등</p> <p style="font-size: 0.7em;">노트북</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2등</p> <p style="font-size: 0.7em;">아이패드</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3등</p> <p style="font-size: 0.7em;">에어팟</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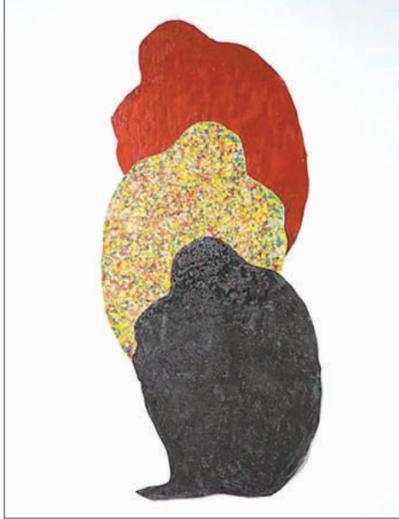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주최: 기독일보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chdailyreporter@gmail.com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조혜경 작가

세상을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는 사랑



터치, 조혜경,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102x190cm, 2023(그림1).

아픈 사연 껴안고 사는 세상에서 슬픔과 고뇌를 보듬고 치유하는 하늘의 터치 목상하며 작품 제작 구속하신 예수 사랑 크고 놀라워

조혜경은 세상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위로를 전달하는 작가이다. 그는 '터치(그림1)'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묘출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형상의 아웃라인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가 사랑했던 한 여성과 관련이 있다. 반 고흐는 벨기에 보리나주 광산에서 선교사 활동을 마치고, 미술가로서 새 출발을 결심한 무렵 삼촌 안톤 모베(Anton Mouve)가 활동하던 헤이그로 그림을 배우러 갔다가 시옌을 만났다.

'시옌'으로 알려진 클라시나(Clasina Maria Hoornik, 1850-1904)는 가난한 집안의 10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살림을 도맡았는데, 가족은 공공 급식소와 교회 자선단체의 도움에 의존하여 살았다. 가족을 떠맡은 그녀는 종국에 매춘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고흐가 시옌을 만났을 때 그녀는 알콜 중독에다 임신한 미혼모였다. 고흐는 그녀를 모델로 썼다가 나중에는 "그녀와 아이를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그렇게 그들의 동거는 시작되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평범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그녀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하다(1882. 6. 1-2)."

고흐는 환경을 뛰어넘어 시옌을 사랑했던 것 같다. 고흐는 시옌을 '짐을 나누어 짊어진 동반자'로 불렀다. 보통 사람이라면 창기를 사귀는 것을 비난했겠지만, 빈센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시옌과 가족을 모델로 한 60여 점의 빈센트의 드로잉 수채화 중 '슬픔(Sorrow, 1882, 그림2)'이라는 작품이 있다. 여성의 이미지는 우리가 고전 명화에서 즐겨 보던 우아한 여성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늘어진 피부, 주름진 얼굴에 가슴은 처져 있고, 배는 나와 있다. 외형적 요소를 미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반 고흐는 여인이 처한 위기가 눈에 띄었다. 이것은 조혜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혜경은 "이 누드 형상의 실루엣이 우리의 슬픔을 담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웅크리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서 이것을 차용하게 됐다. 고흐도 그림을 그리며 아픈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을 했다. 나도 그래서 주위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섬기고 싶다. 그런데 먼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부터 '영적 내리흐름'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녹록치 않듯, 조혜경의 화면 역시 곳곳이 패이거나 상처가 나 있다. 작가는 우리 세상이 험지이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압초를 만나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한다. 그러던 어느 날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앉아 있는 인물을 만난다. 그 사람이 바로 시옌이다.

'슬픔'을 그리기 몇 달 전, 고흐는 세찬 바람에 뿌리가 절반쯤 뽑힌 '뿌리(Root, 1882, 그림3)'를 제작했다. 이 작품이 인간의 '고뇌'와 '고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슬픔>은 나무를 통해 살고자 하는 여인의 '몸부림'을 절실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조혜경은 인간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조혜경은 그림을 그릴 때 고흐가 헤이그에서 만난 여인이 시옌이 아닌 현존 인물, 곧 우리 이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조혜경의 '터치'는 사랑과 신뢰가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 꿈이 표류할 때 이 고통스런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파커 J. 파머(Parker J. Palmer)의 말대로 어떤 사람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진입하여 큰 슬픔으로 절망에 빠지며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확신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내면 활동을 통해 마음이 더 커지고 자비로워졌음을 깨닫는다고 말한다. 이 말은 받아들여진 어렵지만 설득력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처음 받은 슬픔에 잠겨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상실감 때문에 타인의 슬픔과 기쁨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커지는 셈이다. 조혜경은



뿌리, 반 고흐, 수채화, 1882(그림3).

이런 일들이 '나와 너, 우리' 사이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우리라는 연대를 통해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나가는 것, ...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자리임을 알고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홀로가 아님을 드러내보고자 한다(작가노트)."

시옌의 이미지 곁에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화사한 색채가 가미된다. 그것은 화면의 조화를 위한 단순한 색채대비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향한 표시이다(그림4).

그의 그림에서 어둠과 빛, 쇠락과 생명, 슬픔과 희망은 대립물이 아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며 현실의 중심에서 신비한 통합을 이루고 함께 창조한다.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들은 온전함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봄만을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둠 없는 빛, 고통 없이 삶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실한 생기를 주지 못한다. 역경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유연한 마음을 키울 기회나 자비로운 마음을 부양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다.

파커 J. 파머가 '역설적 무도(舞蹈)'라고 명명한 이 대립적 요소의 공모는, 놀랍게도 우리를 내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

<터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껴안고 사는 세상에서 인간의 슬픔과 고뇌를 보듬고 치유해주는 하늘의 터치를 목상하며 제작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만지심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슬픔과 고뇌를 불행으로 인식하기보다, 새로운 삶의 씨앗들이 파종되는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부를 새벽의 노래를 준비하는 것이리라. 조혜경의 작품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려준다.

서성록(안동대 명예교수)



터치, 조혜경, 캔버스 위 혼합재료, 116.7x91.0cm, 2020(그림4).



BewhY Concert in LA with Loving Worship

Tickets — [axs.com](https://www.axs.com)

7PM — Saturday Aug 17 2024

Ticket 문의 — 213-357-1565 \$120 | \$100 | \$80

The Novo Theater 800W Olympic Blvd Los Angeles 90015

협력 기관:

기독교일보 CGN TV
미주 중앙일보 미주 CTS TV
미주 CBS방송 YTV AMERICA

협력 교회:

LA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나성영락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충현선교교회 새생명비전교회
베델교회 LA 동부 사랑의 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강제복송은 국제규범 위반... 중국은 중단해야”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 중국 대사관 인근서 열려 반인륜적 강제 복송에 대한 사죄 촉구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 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9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관련한 최종 입장문에서 탈북난민을 국제법에 따라 강제송환하지 말라는 체코와 한국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탈북난민을 계속 강제복송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뻔뻔한 변명은 중국 내 북한인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서 본국 송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를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이어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북한소식 전문매체인 ‘데일리 NK’는 중국 내 탈북여성 30명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극심한 불안감을 보도했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 강제복송 가능성이 여전함을 인식한 그들은 30명 중 20명이 독약을 준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가을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대규모 강제복송한 사건은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세계인들은 중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라’, ‘반인륜적인 야만 국가’로 더욱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 중국이 세계인들로부터 배척당하며 몰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



29일 오후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국민연합

원 국가로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복송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며 “상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의 자격이 없다. 중국정부는 인권이사국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반인륜적인 강제복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강제복송을 중단하고 탈

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파리 올림픽 개회식, 기독교 조롱에 동성애 표현까지

‘최후의 만찬’에 드래그퀸 등장 가톨릭 주교회, 독일 주교회 일론 머스크 등 전 세계적 비판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일부 장면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올림픽에서는 참가 선수들에게 일체의 정치적·종교적 표현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확고한 방침인데, 올림픽 개최국이 개회식에서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된 장면은 식탁에 푸른 색 옷을 입고 후광인 듯 왕관을 쓴 여장남자 주위로 여장남자 모델들이 늘어선 모습이었다. 이는 한눈에 봐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흉내낸 듯한 것으로, 현지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독교 조롱’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구나 명화 ‘최후의 만찬’은 프랑스가 아닌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수도원에 자리해 있는데, 보통 자국의 문화적 유산을 오랜 시간 속속들이 소개하던 개막식에서 뜬금없이 해당 ‘패러디’가 등장한 것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 뿐만 아니라 개회식 성화 봉송 도중 남성 동성애자 3명이 야릇한 시선으로 서로 포옹하는 등의 몸짓을 보여 주다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는 듯 문을 광탄아버리는 장면까지 등장해, 안방에서 시청

하던 시민들을 경악하게 하기도 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댓글로 ‘게이 쓰리셋(3명이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암시한다’고 추측했다. 사전 미디어 리허설 없이 해당 장면이 생방송으로 여과 없이 노출되자, 수어 통역사가 순간 ‘얼음’처럼 아무런 표현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그대로 노출됐다.

이 모든 내용들은 ‘평등’과 ‘축제’라는 명목 아래 진행됐으나,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사상(PC)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해당 장면이 전 세계로 실시간 노출되면서, 전 세계 기독교계와 건전한 시민 사회에서 비판이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생각할 만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 이번 패러디의 의도였고, 유머와 풍자 의미도 있다”며 개회식 예술 감독의 의도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개회식 예술 감독을 맡은 배우 겸 예술 디렉터 토마 졸리도 “해당 장면은 결코 공분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었고, 포용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토마 졸리와 그의 천재적인 창의성에 감사하다”며 “이 독특하고 마법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 주신 예술가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계 기독교계 일제히 비판

그러나 개최지인 프랑스 주요 종교인 가톨릭 주교회는 “(해당 장면은) 기독교를 조롱하



개막식 도중 드래그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을 흉내낸 듯한 장면.

고 비웃는 장면이었다. 깊이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주교회도 “성소수자 성찬식은 최악의 장면이었다”고 성토했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마린 르펜 의원 조카인 정치인 마리옹 마레살 르펜은 해당 영상을 SNS에 게재하면서 “올림픽 개회식을 지켜본 전 세계 기독교인 모두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이 드래그퀸에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 지도 “도발적”이라고 평했다. 프랑스 시민들도 해당 장면에 대해서만큼은 “이 괴물 쇼에 대해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프랑스 여성으로서 개회식이 매우

당황스럽고, 전 세계인들에게 이 역겨운 희극이 송출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그들이 모든 것을 망쳐냈다” 등 부정적 반응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번 공연은) 기독교인에게 극도로 무례하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제나 엘리스토도 “이교도적이고 사탄적인 상징주의”라고 비판했다. CNN 진행자 출신 피어스 모건은 “다른 종교였다면 이렇게 조롱했을까. 끔찍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컬러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기(氣)의 제왕”

영양칠보석



“병명없이, 이유없이 아픈 분들” 에게
 인체 약 150여군데에 자연의 기에너지파동을 넣어줍니다.

- 자연이 만든 세계 최고의 기 발산석 영양칠보석
- 세계가 인정한 우리 고유의 돌입니다.
- 기와 원직외선이 옥의 약 250배
- 맥반석, 게르마늄의 약 150배
- 황토의 200배



영양칠보석 건강에 최고



칠보석 매트(1인용)



칠보석 매트(2인용)

*교통사고 환자분에게는 특히 최고입니다

-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는 분
 - 어깨가 결리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신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항상 피곤하신 분, 피곤한 수험생, 직장인 및 고령자 분
 - 혈액순환 장애로 아침에 항상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 분
- 이런 분들께 효과가 있습니다.

*오목세트(목걸이1, 팔찌2, 발찌2)를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석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1인용) 소파방석



원석 (1인용) 소파방석



영양칠보석 건강센터

952 S Western Ave #110, Los Angeles, CA 90006

213.663.8052